

신년사

사랑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변화와 도약을 꿈꾸는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한 올 한 해도 주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의원 모두는 주민여러분의  
소중한 뜻과 바람이 구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희망은 준비하고 도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모두의 꿈을 향해 한발 더 다가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랑구의회 의장 김수자



새해 첫 의정활동 현충원 참배로 시작



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월 4  
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의원들은 민족의 성역인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  
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

국영령 앞에 머리 숙여 신묘년에도 43만 중랑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  
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의  
원들은 사무국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새해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구정 각 부문에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온 중랑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제166회 정례회 폐회

중랑구의회 제166회 임시회가 1월 5일 개최되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고 1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1월 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2011년도 업무보고  
가 있었으며, 마지막 날인 1월 14일에는 김근종 부의장의 사회로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였다.

처리안건

- ▶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행정재경위원회)
- ▶ 김수자 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양원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살고 계신 분  
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  
로 못하고 공익을 위해 수 십년간 말없이 희생해 왔다”며, “앞으로 보상가 산  
정 시 인근 지역 토지 지가 수준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謹賀新年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제6대 중랑구의회 캐치프레이즈 확정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한해도 중랑구의회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